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5

일체를 생동케하는 법음

[원문]
웅음고목유생희(龍吟枯木猶生喜)
촉루생광식전유(觸露生光識轉幽)
뇌락일성공분쇄(磊落一聲空粉碎)
월파천리방고주(月波千里放孤舟)
-희양산 봉암사 조사당

[번역]
웅은 고사목이 살아있는 듯 소리를 울고
해골에서는 그윽한 알음알이의 빛이 생기네.
선선한 한 마디 하늘 부스르르리며
달그림자는 작은 배를 천리나 멀리 띄워 보내네.

[신해(禪解)]
산사의 겨울나기는 참으로 힘들다. 전기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암자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요즘에야 사람에도 전기와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어 편안하지만, 60~70년대만 하더라도 겨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행(苦行)이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서 음력 10월 15일이 되면 세 달간의 동안거에 들어간다. 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스님들은 겨우내 떨장작을 마련해야 하고, 때끼니 공양할 매주도 떠놓아야 한다. 이것 자체도 하나의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물자가 풍부하지 못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동안거는 하안거보다 수행하기가 더욱 힘들다.

봉암사는 한국 사찰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선불교 수행도량이다. 일제시대 때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인해, 해방 후에도 한국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의 회복을 위해 봉암사는 한국 근대 선원으로 부활하게 된다. 즉 '봉암사 결사'가 바로 그것이다. 1947년 성철 스님을 필두로 청담·자운·우봉 스님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임시적인 이익의 관계를 떠나서 오직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고쳐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웠다.

그 후 청담·행곡·월산·종수·보경·법전·성수·혜암·도우 스님 등 20인이 결사에 참여했는데 당시 결사대중은 공주 규약을 제정해 추상같은 법도틀 세워 오늘날 수행의 근간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결사정진도 1950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 후 1970년 초부터 다시 수좌들이 봉암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봉암사 회양선원은 1972년 항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남자가 정진했으며 1974년에 서운

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항곡 스님이 줄곧 조실 역할을 하면서 남자를 제접했다. 1980년경 서암 스님이 정식으로 태고선원 조실로 모셔지면서 선원은 정통의 승전과 봉황의 날개짓처럼 웅대한 자태를 회양산 자락에 펼쳐져 있었다. 1982년 6월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해 성역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82년 7월 문경군에서는 사찰 경내지를 확정 고시하고 봉암사 지역은 특별수도원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등방제일 수행 도량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처럼 봉암사는 한국 선불교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수행 도량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때인 879년 지증도현 국사가 창건하였다. 당시 심충 거사가 대사의 명성을 듣고 회양산 일대를 회사하여 수행도량으로 만들 것을 간청하였다. 대사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이곳을 둘러보고 "신이 병풍처럼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흠는 것 같고 강물이 멀리 흘러났는데 즉 불 없는 웅의 허리가 들을 났은 것과 같다."며 경탄하고 "이 땅을 얻게 된 것이

반드시 이곳 봉암사를 찾았다"고 한다. 봉암사의 유적으로는 봉암사 3층 석탑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와 상부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의 비례와 균형이 조화되어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상륜부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한국 석탑 중에서 매우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중 대사 적조탑과 마애보살 좌상이 지방문화재로 등록 되어있다. 그럼 조사당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웅음고목유생희 촉루생광식전유: 웅은 고사목이 살아있는 듯 소리를 울고 해골에서는 그윽한 알음알이의 빛이 생기네.’

웅음이란 웅이 소리를 길게 내 뿜는 것을 말하고 촉루는 해골을 뜻한다. 즉, 여기에서 웅은 성스러운 부처님을 일컫는데 부처님의 위엄한 말씀을 듣고 고목의 잎과 나무 가지가 춤을 추고 죽은 사람들의 해골조차 광명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다. 잠으로 부처님의 웅음은 이렇듯 생명체와 무생물까지 살아 움직이게 할 정도로 광대하고 무변하다.

아니, 실상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법음을 한 시도 멈춘 바 없이 들려주는 동시에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일체 존재 그대로가 부처의 몸이기 때문이다.

‘뇌락일성공분쇄 월파천리방고주: 선선한 한 마디 하늘 부스르르리며 달그림자는 작은 배를 천리나 멀리 띄워 보내네.’

뇌락은 우뚝한 근기를 가진 중생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선선하고 너그러운 말씀을 뜻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은 선선하고 너그러우나 하늘을 부술 정도로 위엄이 서려나가는 뜻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때론 침묵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요하거나 우뢰와 같거나 말없음이 모두 모든 짐승을 두려움에 떨게하는 사자후인 것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그 말씀을 마치 천지를 비추이는 달처럼 널리 퍼져 중생의 마음을 적신다. 이렇듯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은 전생, 현생 내생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 지상 어느 곳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봄에는 꽃, 여름에는 푸르른 나뭇가지, 가을에는 붉은 단풍, 겨울에는 별겨벗은 나무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장통 상인들과 손님의 흥정과 말다툼 그대모가 불법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니, 부처님 법은 시·공을 초월해 중생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부처님 말씀은 천지를 비취 중생의 마음 적신다
봄 꽃과 가을 단풍도 알고보면 모두 부처님 법음

어찌 하늘이 준 것이 아니겠는가.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라 하며 대중을 이끌고 절을 지었다.

지중 대사가 봉암사를 개산하여 선종을 크게 떨치니 이것이 신라 후기에 새로운 사상흐름을 창출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회양산문이다. 그 후 후삼국의 대립 갈등으로 절이 전화를 입어 폐허화되고 극락전만 남았을 때인 고려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중창하여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지중 대사가 봉암사를 개산하여 선종을 크게 떨치니 이것이 신라 후기에 새로운 사상흐름을 창출한 구산선문 중 하나인 회양산문이다. 그 후 후삼국의 대립 갈등으로 절이 전화를 입어 폐허화되고 극락전만 남았을 때인 고려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중창하여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다. 조선조 세종대왕 때 협허당 기화 스님이 절을 중수한 뒤 머물면서 <원각경소>를 저술하였고, 1674년 다시 소실된 절을 신화 스님이 중건하였으며 1703년 다시 중건하였으나 이후 크게 쇠퇴하였다. 이후 태조 18년 정진 대사가 사찰의 소임을 볼때는 이 봉암사에 3천여 대중이 머물러 동방장과 서방장으로 나누어 정진을 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태고 보우국사'를 비롯한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정진하여 '동방의 출가 승도는 절을 참배하고 도를 물을 때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5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라

[원문]
若不見性 講經 決無憑 說亦無盡 略標邪正如是 不及一二也. 頌曰 心心心難可尋 寬時遍法界 窄也不容鍼 我本求心不求佛 知三界空無物 若欲求佛 但求心 只這心心心是佛 我本求心心自持 求心不得 待心知 佛性不從心外得 心生便是非生時. 偈曰 吾本來此土 傳法救迷情 一華開五葉 結果自然成.

성품을 보지 못하면 경론을 강설하여 주더라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리라. 설법을 하자면 끝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사뭇고 바름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하였는데, 모두들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계승으로 말하리라.

"마음, 마음, 마음이어! 찾기가 어렵구나. 너그러울 때는 법계에 두루 하지만 좁을 때엔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지 부처를 찾은 적이 없느니라. 삼계가 공(空)하므로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부처를 찾으려면 오직 마음을 찾아라. 이 마음, 마음,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니라."

법을 전하는 계승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건지려 한 것이니/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리어/열매가 저절로 맺으리라."

[해설]
성품을 보지 못하면 즉, 우주의 근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설을 해주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달마 스님께서 사뭇고 바름, 정도와 의도를 말씀 하셨지만, 아직도 충분히 알아듣지 못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어! 찾기가 어렵구나."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찾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본래 자리에 마음을 두면 되는 겁니다.
"너그러울 때는 법계에 두루하지만 좁을 때엔 바늘끝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마부 사이에도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포용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바늘구멍 만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제대로 쓰면 한량 없는 우주와 같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바늘구멍 보다도 더 좁은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

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도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나는 본래 마음을 찾았지 부처를 찾은 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본래 마음을 찾아야지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삼계가 공(空)하므로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노라. 부처를 찾으려면 오직 마음을 찾아라.'

색계, 욕계, 무색계가 다 공하고 마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마음은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니가, 마음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성은 마음 밖에서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생기면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니라.'

불성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니까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體)'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번뇌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법을 전해 미혹한 중생을 건지려 한 것이니/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리어/열매가 저절로 맺으리라.'

인도에서 오신 달마 스님께서서 부처님으로부터 28번째 법을 이어받으신 28조 조사(祖師)입니다. 여기서 '한 송이 꽃'은 달마 스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禪)을 다른 말로 꽃이라고 말합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들어가는 화(華)자에 '빛날 화'자를 쓰기도 하지만 '꽃 화(花)'자로도 씁니다. 진리 차원에서 보면 이 우주가 모두 꽃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을 스스로 한 송이 꽃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 선종에선 법을 이어받은 순서대로 달마 스님께서서 1조가 되고 2조가 혜가 스님, 3조가 승찬 스님, 4조가 도신 스님, 5조가 흥인 스님, 6조가 혜능 스님입니다.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열린다는 말씀은 다섯 분(혜가, 승찬, 도신, 흥인, 혜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분이 중국 전 대륙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예까지 선(禪)을 알리고 선의 꽃이 활짝 피어 열매 맺게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달마 관심론(觀心論)'이 연재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채초(蔡絛) 작, '달마 면벽도'(1980).

Advertisement for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운세!' (365 days, one page each, daily fortune-telling). It features a book cover with a dragon illustration and text: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Contact info: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Advertisement for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Spirit-removing white herb fortune-telling). It features two books and text: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Contact info: 百超律歷學堂, 百超백초스님, 02-500940, 010-6413-4443.